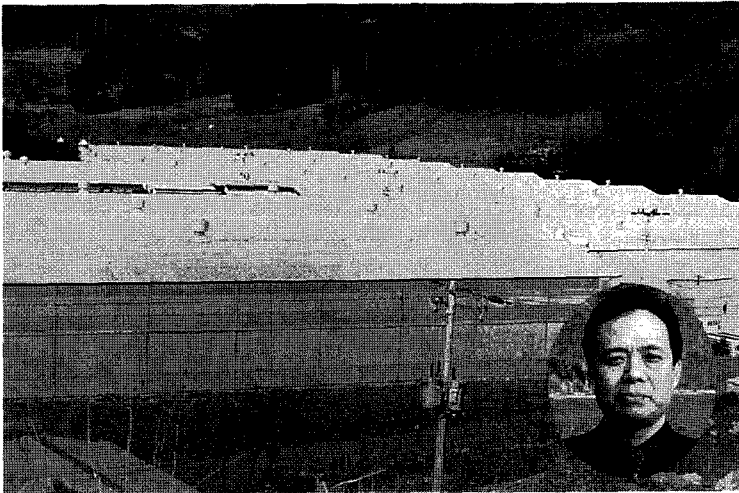


추가지원 10억 요청, 마무리 서둘러

□ 취재/이인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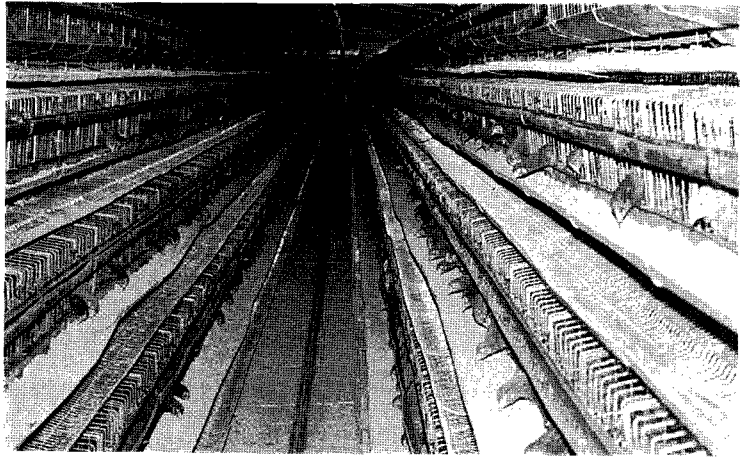
전남 화순 양계단지 전경모습 (원내는 윤석현 대표, 현 본회 전남지부장)

그 동안 국내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축산(양계)단지조성사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양계단지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지고 있는 곳은 전남 화순양계단지를 비롯하여 대략 10여군데, 이는 사양관리 공동체계구축을

통하여 규격축산물 생산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부업 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 정착된 축산농가 육성을 도모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 인해 대상농가선정문제, 토지 소유분할문제, 주민들의 민원 문제, 자금 및 인허가문제 등 여타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양계단지조성사업이 상당한 난관에 봉착, 지연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주민동의서를 얻어 내지 못하여 그만두는 사태까지 발생되었으나 전남화순에 위치한 화순양계단지(대표 윤석현)의 경우 모든 문제들을 무리없이 해결하여 현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양계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지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농가선정문제, 둘째 토지소유분할문제, 셋째 주민들의 민원문제, 넷째 자금 및 인허가 문제 등 크게 4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하고 현재 양계단지 조성을 90% 완료시킨 화순양계단지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 양계단지 계사내부 광경

열거해 본다.

우선 대상농가 선정을 보면 지난 '91년 10월경 선진양계장(일본, 네덜란드)을 견학한 후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해 축사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절감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깊이 인식한 바 당시 15농가로 구성 단지조성사업을 구상하여 착수, 추진과정에 있어 5농가가 자진 포기함으로 인해 최종 10농가로 확정 본격추진에 들어갔다.

사업대상자 10농가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억제기 위해 순수양계 7농가, 인근마을 대표1농가, 사료취급 1농가, 계란유통 1농가를 참여시켜 추진과정에 있어 후자 3농가는 본인의 사정(타사업 인수운영)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진포기하므로 부득히 사업대상자재선정 과정에서 순수양계농가로 교체되어 단지조성 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토지매입 및 분할과정을 보면 화순군 동면 서성리 일대 39필지(총 부지면적 17,313평)를 지난 '91년 11월부터 매입에 착수하여 약 8개월간에 걸쳐 부지매입을 매듭지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토지소유주가 상이하여 각 필지별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합병을 통하여 공동명의로 한후 평지작업을 완료하고 토지분할에 들어갔다.

막상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

되어 당시로서는 가장 커다란 난관이었다. 이때 느낀것이 「UR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기주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전남지부 윤석현 지부장은 당시 어려웠던 사항을 털어 놓았다.

심사숙고끝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임의로 가격기준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해 공정하게 등급을 지정하여 추천하는 형식으로 하여 토지소유분할문제를 매듭지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한편 국내 선진양계장을 견학시켜 이해를 구하였다. 또한 양계단지선정위치가 인근마을과 2km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3백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샘)을 개발하여 인근주민 70여 농가에게 식수난을 해결하여 줌으로서 주민동의서를 얻는데 일단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자금동원 능력이다. 화순양계단지의 경우 지난 '92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임의로 가격기준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해 공정하게 등급을 지정하여 추천하는 형식으로 하여 토지소유분할문제를 매듭...

년 3월경 농림수산부로 사업승인을 얻어 축산진흥기금 14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7억5천만원으로 총사업비 23억5천만원으로 '92년 3월부터 '93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양계단지조성사업을 착수, 추진과정에 있어 2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어 그간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과 아울러 부지면적과 사업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증가로 인해 자금부족현상이 초래되어 '93년 12월경 농림수산부에 기존축산단지 추가지원금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화순양계단지의 경우 이러한 모든문제들을 매듭짓

고 총부지 면적 17,000여평(건평 5,300평)에 고상식계사 20동(1동 265평)을 건축, 현재 작업공정율(시설면) 90%을 완료시켜 놓은 상태인데 양계단지가 완료될 경우 총사육수수가 36만수 사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94년 2월 현재 70일령된 중추 약 18만수가 입추되어 4월초 계란이 생산될 예정이다.

당초계획을 보면 사료구입에서부터 사양관리, 계란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제 구축을 통하여 최대한 생산비 절감차원으로 유도되었으나 토지소유 분할후(1가구당 계사2동 소유) 사료구입을 비롯하여 중추구입, 기타 물품 구입문제등이 제각기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향후 양계산업도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크든 작든 피해를 입을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은 생산자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내 축산물이 국제간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양계